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이 833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7월 4일 밝혀지면서 불교계와 미술사학계가 흥분하고 있다. 석불을 통해서만 대략 짐작하던 통일신라시대 목불의 양식이 처음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미술사를 새로 써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사'를 지켜보면서 고개를 가우뚱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왜 지금까지 통일신라 불상이 조선 초기의 것으로 간주돼왔는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착오의 원인을 개금(개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부처님 얼굴을 비뚤(?)놓기도 하는 개금에 대해 살펴본다.

'신라' 불상이 왜 '조선작'으로? 계속된 '개금불사'가 원인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의 개금불사를 위해 칠을 벗겨낸 상태(왼쪽), 얼굴표정이 예전의 개금상태(오른쪽 아래)의 것과 달라 보인다. 오른쪽 위는 현재 개금불사를 위해 옷칠된 상태.

부처님의 몸빛이 황금색이라고 하는 경전적 근거를 따라 불상에 금박을 입혀 장엄하는 전통이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 금박이 탈락하고 변색되기 때문에 금을 다시 입힐 필요성이 생긴다. 이를 개금이라 한다.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 경우에도 개금이 개금을 거듭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조선시대 불상으로 둔갑하게 됐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금불사가 이뤄지는 각 시대에 따라 얼굴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른다. 불사 참여자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개금불사까지 시대의 신물로 치부하며 넘어가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요즘 시행하는 대부분의 개금불사는 개금이 답겨야 할 불상은 물론, 장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외면한 채 진흙땀 불상 보존에 치명적인 위기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판명된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이 단적인 예다. 2000년 개금한 불상을 불과 5년만에 다시 개금해야겠다는 것은 이전 개금이 엉터리였음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개금불사의 핵심-옷칠

개금작업하면 금박 입히기를 떠올리기 십상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작업은 옷칠이다. 옷칠은 목불을 병충해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옷칠을 잘 해야 금박도 잘 붙고 오래간다.

개금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존의 금박과 칠을 벗겨내는 작업이다. 목재가 드러날 때까지 칠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1~2회에 걸쳐 생칠을 먹인다. 칠은 목재로 스며들어 바탕을 단단하게 한다.

다음에는 삼베를 씌우고, 찰흙과 생칠을 섞은 호칠을 바른다. 이는 목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삼베는 목재를 견

개금 시대 따라 얼굴 조금씩 달라져 신앙·예술·과학성 조화된 전통불사 불상 보존에 치명적인 카슈칠 막아야

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삼베를 씌우고 나면 토분과 생칠을 섞어 만든 재료로 삼베 실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고, 사포질을 해서 오돌도돌한 부분을 다듬는다. 이를 논메우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토분과 생칠, 물 등을 섞어 칠도 회칠하고 사포로 다듬기를 3회 가량 반복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목재의 면은 더욱 고르게 다듬어지고, 견고해진다.

토회칠을 마치고 나면, 다시 생칠을 먹인다. 토회칠 과정에서 물을 섞어 표면에 생긴 모공에 생칠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모공이 생칠로 메워진 목재는 더욱 단단해진다.

토회칠 다음에는 초칠·중칠·상칠이 기다리고 있다. 상칠은 아주 고운 칠로, 먼지 하나 들지 못할 밀폐된 곳에서 작업해 된다. 상칠 작업을 고운 칠로 하는 까닭은 이 바탕 위에 금박을 입혀야 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생칠 작업부터 상칠 작업까지 두 달 가량 소요된다.

금박은 상칠이 완전히 마르기 직전에 붙인다.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박 붙이기 또한 밀폐된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 먼지가 붙으면 표면이 갈라지게 되지 않고, 바람이 불면 금박이 날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금박은 주로 불상의 의복 부분에 사용되는 반면, 피부부분에는 금가루를 붙인다. 금가루는 무광 효과를, 금박은 광택 효과를 내는 데 이용된다. 금박 붙이기가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나면 불상에 눈칠, 입칠, 눈동자 등을 표현하는 '점안'이 가능하다.

■ 장인정신 실종...원형 훼손도

옷칠을 사용한 개금불사는 이처럼 까다롭다. 한 마디로 정성과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다보니 별로 선호되지 않는다. 카슈칠이라고 하는 훨씬 '간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카슈칠은 열대지방에서 재배되는 카슈(Cashew)라고 하는 견과류에서 액체를 추출하고, 여기에 화학물질을 첨가해 만든 칠재료다. 카슈칠은 일제시대 '서양 옷칠'로 소개돼 도입됐다.

이후 비싼 천연 옷칠을 대체하며 각광

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교자상은 대부분 카슈칠을 쓴 것이다.

카슈칠은 옷칠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옷칠로 두 달 가량 걸릴 일을 10여 일만에 끝낼 수 있어, 카슈칠은 비용절감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는다. 하지만 불상 보존의 측면에서는 아주 치명적이다. 즉, 카슈칠은 기층이 많이 섞여 있어, 옷칠이 갖고 있는 자동 습도 조절이나 통풍 등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카슈칠 인접에서 부식이 나타나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칠의 수명이 짧아 금박의 변색과 탈락이 쉽게 나타나는 것도 약점이다. 전문가가 아니면 카슈칠과 옷칠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카슈칠의 눈속임 사용을 부채질한다.

■ 문화재청, 카슈칠 사용 조장(?)

해인사측이 일부 공개한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개금불사 사진에 따르면 이 불상 역시 예전에 옷칠이 아닌 카슈칠이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확인한 이종현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문인서화학과)는 "의복부분에 나타나는 붉은 빛이 카슈칠의 흔적"이라고 단언했다. 개금한 지 불과 5년만에 다시 개금해야 하는 원인이 카슈칠에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근래의 개금불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칠을 쉽게 하고, 기층을 단속하기 위해 화학소재를 불상 표면에 두껍게 올리는 경우도 많다. 금을 아끼기 위해 글썽을 때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화재청도 카슈칠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 도급공 분야에서 카슈칠 사용을 전제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금이란 부처님 웃을 새로 입히는 불사다. 제대로 하면 그 빛이 50년 이상 유지되고 불삼도 불라일킬 수 있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이유로 엉터리로 개금을 하면 불상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불삼마저 망고고 있다. 이종현 교수는 "개금불사는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는 불사인 만큼 정성을 다해야 한다"며 "작업 과정을 꼼꼼하게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보고서도 남기게 해 작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news.com
도움말=이종현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인서화학과)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8>

브라운 운동과 인연

지난해 <타임즈>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아인슈타인을 선정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세 개의 위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것들의 주제는 '전자의 광효과' '상대성이론' '브라운 운동' 등이다.

브라운 운동이란 물 속에 잉크가 확산해 나가는 것과 같이 불규칙한 운동을 말한다. 항을 사를 때, 공기 중에 향연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 또한 불규칙한 브라운 운동이다. 아인슈타인은 잉크의 불규칙한 운동이 물속에서 수많은 작은 물분자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향 연기 분자 또한

규칙한 점들은 바로 전자의 임의운동이 화상으로 바뀐 것이다. 브라운 운동과 같은 불규칙한 운동은 실제로 우리 생활 도처에서 발견된다. 우리의 맥박이 뛰는 신호 역시 일정한 규칙성(평균)과 함께, 편차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떤 때는 평균보다 늦게, 어떤 때는 평균보다 빠르게, 예측할 수 없는 임의성을 가지고 뛰고 있다. 어린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은 어머니 심장 박동의 임의성 때문이라고 한다.

생물이 태어나는 모습 또한 부모 측이 만들어 내는 임의의 DNA 조합이다.

생명은 부모가 생성한 임의의 DNA 조합 분자가 한순간 존재하는 방법의 하나뿐

공기 중의 작은 분자들과 부딪치면서, 불규칙한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임의운동이라고 부른다.

향 연기 분자 하나하나의 임의 운동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은 확률이라는 수학적 기법을 사용한다. 즉 향 연기의 집단적인 움직임의 평균과 평균을 따르지 않고 퍼져있는 정도를 편차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이 편차가 우리가 느끼는 열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기나 물 분자의 열이 높으면 그만큼 불규칙한 운동이 많아져서, 잉크나 향연기가 퍼져나가는 편차를 크게 만들 것이다.

TV나 전속에서 소리나 화상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내부의 전자의 운동 또한 비슷한 임의 운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TV 신호가 끊겼을 때, TV 스크린에 나타나는 불

따라서 생물학에서 발현하는 모습을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서 우성과 열성의 비율 예측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긴 모습, 살아가는 모습 또한 공기 중을 불규칙하게 떠다니는 연기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기가 공기 분자에 의해서 임의로 움직이듯이, 나의 모습 역시 과거의 임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향 연기 분자 하나를 따라가면, 그 분자 하나가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분자를 잊도 특한, 과거의 수많은 내가 가끔 작은 존재였던 듯한 한가지 밖에 없다는 놀라운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다. 비록 인간이 불규칙한 임의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말이다. 내가 가끔 작은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 나를 잊게 한 알 수



그림 : 문병성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禱犬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제재자 선광수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 규격에서는 연구논문 등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 산성배양균이 함유되어 있다는 오해에 오가피 제재는 생약수에서 수신토종오가피와 하등의 편이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사별 후 교수직 제직된 분장대원을 드립니다.

오직 900분배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토종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만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제재자 생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품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일 001번부터 900만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신중하게 본래 그 가치와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썩뜸용구-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썩뜸기 체험방 모집!

대박점은 틈새업종

이종현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썩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과 내장으로 썩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썩뜸을 할 수 있다.

오행썩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썩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썩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썩뜸기 내부에 온열판 장치로 썩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됨.
- 인체의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썩뜸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썩뜸기

의료용으로 허기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ISO 9001:2000

대리점 및 썩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오행썩뜸기, 음양 썩뜸기, 오행좌썩뜸기 등을 경험할 및 사후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립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원칙한 본사의 교육)

www.moxa4u.com 오행썩뜸기·좌썩뜸기·음양썩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T인연 대구 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사업부